

MB,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16개 혐의 중 삼성 부분 따로 언급 "충격·모욕... 국익 위해 이견회 사면"

이명박(77·사진)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 것을 두고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풀 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직접 모두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증거)에 부동의하고 증인들은 진술(증거)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루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고심 끝에 증거를 다루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소 사실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만을 따로 거론했다. 그는 "저에게 (이견회 회장) 사면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며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국익을 위해 이견회 삼성 회장이 아닌 이견회 IOC 위원인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모두진술을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이견회 회장 사면을 대가로 한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별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뉴스



용진 진입로 입구 도로변 포트홀 '위험' 전주 용진~완주 용진간 도시외곽도로 용진 진입로 입구 도로변이 허우리를 지나면 포트홀이 생기고, 이를 시공사가 반복 보수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환경·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처리장 홍보관을 전시관으로 차수처리수 재이용 습지·실개천 갖춘 생태교육장도 조성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환경·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올해 총 17억원을 투입해 낡고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전주 하수처리장 홍보관을 어린이들이 직접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홍보전시관으로 만들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습지와 실개천을 갖춘 생태교육장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8월말 완공목표로 진행되며,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한 인공습지와 생태실개천 조성 시기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공사가 완료된 9월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체험형 환경·생태학습장이 갖춰지게 된다. 먼저, 시는 9억여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장 홍보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시행하고, 8억원을 추가 투입해 생태학습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습지와 실개천을 갖춘 생태교육장도 동시에 조성해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홍보관 실무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각도 소통을 통해 관람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이날 로고 방식의 홍보관과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 공공하수처리장 홍보관에 유치원생 등 3,577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매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방문객수가 늘고 있지만, 낡고 체험공간이 부족한 홍보관 시설이 관람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홍보관 리뉴얼과 생태체험장 조성은 준비해왔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하수처리장 견학을 통해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과 오염을 줄이는 물 사용방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체험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공간과 학습공간과 연계해 하수처리 시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와 전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인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일 전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주시역 5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1회차 교육에 이은 2번째 교육이다. '스트레스 알고 대처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김지에 전주근로자건강센터 팀장이 강사로 나서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평가,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법 등을 소개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살에 평화를 심고" 23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을 남북 평화교류 중심지로 만들자고 전북도와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탄소융합기술원, 입주희망기업 11곳 최종 선정

전주시가 창업 초기 탄소기업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성공창업의 꿈을 이어나갈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 창업기업 전용 보육공간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는 23일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를 희망한 21개 기업에 대한 신청기업 평가를 실시하고, 11개

유망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1개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창업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은 전주시와 전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최근 높아진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

과 관련기업들의 입주 공간 수요에 맞춰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2층 건물이었던 창업보육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증축공사로 기존 17개실이었던 탄소기업 입주공간도 28개실로 11개 늘어났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입주공간 추가 확보로 탄소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이승훈 후배 폭행 의혹 "진상조사 후 징계해야"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 이승훈(30·대한항공)이 후배 선수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26일~4월30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밝히면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A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문체부는 "폭행 사실에 대해 A는 후배에게 훈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진상조사와 함께 A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라고 조치했다. 빙상계 관계자는 "A는 이승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훈의 소속팀인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승훈은 밴쿠버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타트 금메달을 따며 한국 빙속 장거리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